

불황 극복 7대 제안... 의 온도를 높이자

기업·지역경제 동반성장 돕는다

7 지역제품 사주기

‘지역경제 살리기’는 단순히 기업들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를 위해 온 국민이 금을 모았듯, 지역경제 불황극복을 위해 기업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동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광주의 대표기업인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를 위해 과거 광주시민들이 보여준 ‘온정’은 당시 낙후된 지역 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지난 2006년 공공기관 및 기업인으로 구성된 ‘광주기업사랑협의회’는 첫 사업으로 당시 환율하락의 파고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기아차 광주공장을 돕기 위해 ‘기아차 사주기 운동’을 전개했다.

지역기업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시민 100여명은 2006년 5월25일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기아차 구매공동협약 체결 및 동참호소문’

기아차·금호타이어 지역민 ‘온정’ 큰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구매 앞장서야

을 발표하고 ▲KT 전남본부 112대 ▲전남체신청 13대 ▲농협광주본부 10대 ▲한국도로공사 호남본부 8대 ▲광주지방국세청 5대 ▲광주시 3대 등 20개 기관이 177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광주시는 도심 20곳에 ‘기아차를 사자’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운동을 주도했다.

실제 2006년 1/4분기 기아차의 광주지역 점유율은 27%에 불과해 당시 현대차가 울산공장이 있는 울산지역에서 같은 기간 기록한 현대차 점유율 68.3%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하지만 기아차 사주기 운동이 펼쳐지고, 이후 시민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4년 뒤 광주지역 기아차 점유율은 40.2%까지 올라갔다.

금호타이어도 지역민의 사랑으

로 몸집을 키웠다. 지난 2010년 전남도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을 방문, 지역기업 회생 지원을 위해 ‘금호타이어 제품 구매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별도민 기업사랑 운동을 펼쳤다. 2010년 2월 펼쳐진 행사엔 전남도와 14개 전남지역 지자체가 참석했고, 행사 기간 동안 3000본 이상의 타이어가 직접 판매됐다. 시민들도 차후 구매를 위해 쿠폰을 사며 금호타이어를 도왔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당시 지역 사회에서 지역기업 살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지역기업을 위해 기업인과 시민들의 활동이 활발한 만큼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도 중소기업 제품의 구

매액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은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공공구매종합정보(www.smpg.go.kr)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각각 91.5%, 91.3%로 잡았다. 같은 해 전남도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중소기업제품 구매/총구매×100)은 94.6%로 목표를 초과한 반면, 광주시의 구매비율은 77.5%에 머물렀다. 광주시는 2012년 구매목표를 85%로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법적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50% 이상만 구매하면 되지만 이를 넘겼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선 미흡하다고 여길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더 구매한다면 기업들의 판로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하라

전국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원들이 10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소상공인단체 비상대책위·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원들이 10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현행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진흥기금 10조원 조성 검토

인수위, 가업 승계 중소기업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도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증여세 특례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최대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우선 중소기업 증여세의 경우, 업주가 생전에 기업을 물려주면 최고 50% 세율의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미리 기업을 물려주려고 해도 세금 부담 때문에 이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다. 때문에 세금을 내려고 기업 지분이나 건물 등을 내다 파는 일이 비일비재해 가업 승계가 어려웠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08년 증여세의 특례 규정을 신설, 30억원 한도에서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했지만 이런 특례 한도가 지나치게 낮아 중소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졌다는

계 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특례한도를 확대, 가업승계를 쉽게 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증여세와 달리 업주의 사후(死後)에 과세하는 상속세의 과세 표준 공제 범위(300억원 한도에 70%)를 늘리거나 공제 후 적용 세율(최고 50%)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소상공인 살리기’의 일환으로 오는 2017년까지 최대 1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연간 1조원씩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집권 5년간 5조원대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그밖에 소상공인 통합물

류단지 및 공동배송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며 재래시장에서 사용하는 ‘은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도 2017년까지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코스피지수	2006.80 (+14.99)
▲ 코스닥지수	514.48 (+2.54)
▼ 금리 (국고채 3년)	2.70% (-0.05)
▼ 원·달러 환율	1060.40원 (-1.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1분기 신규 외국인력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올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3년도 1분기 신규 외국인력 신청을 14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1분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수는 14일부터 25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발표는 2월 7일,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18일부터 진행된다. 또 올해는 선착순 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사업장별 접수를 산출, 고용허가서 허가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접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점수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www.kbiz.or.kr/branch/gj)를 참조.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0대 그룹 순이익, 전체 상장사의 78%

작년 1~3분기...매출액은 492조 54% 차지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의 순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비중은 나날이 커져 중소기업들이 설 땅은 좁아지고 있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경제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와 재발닷컴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제조업) 상장사 1345곳의 작년 1~3분기 매출액 909조3000억원 중 총수가 있는 10대 재벌 그룹 상장사 80곳의 매출액은 492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54.2%에 달했다.

그룹별 매출액은 삼성이 152조5000억원으로 16.8%를 차지했고 현대차 100조5000억원(11.1%), LG 73조7000억원(8.1%), 포스코 43조8000억원(4.8%), SK 42조4000억원

(4.7%), 현대중공업 24조9000억원(2.7%), 롯데 24조4000억원(2.7%), GS 13조원(1.4%), 한진 10조5000억원(1.2%), 한화 6조7000억원(0.7%) 등이었다.

또 10대 그룹의 영업이익은 42조3000억원으로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56조8000억원)의 74.5%였고 순이익은 36조9000억원으로 전체 순이익(47조3000억원)의 78.1%로 더욱 컸다. 10대 그룹의 매출액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52.1%에서 2009년 53.6%, 2010년 55.2%로 커졌다가 2011년 54.0%로 다소 줄었으나 작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는 54.2%로 다시 확대됐다. 작년 4분기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10대 그룹 비중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작년 1~3분기 누적 매출액은 103조

7000억원으로 전체 상장사의 11.4%를 차지했다.

재벌 대기업들은 생산성 뿐만 아니라 자금조달 능력에서도 월등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업체들을 포함한 10대 재벌 95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지난 8일 현재 733조9000억원으로 전체 시가총액(1천267조5000억원)의 57.9%였다.

삼성 17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336조원으로 26.5%를 차지했고 현대차 10.3%, LG 6.1%, SK 5.5%, 포스코 3.1%, 롯데 2.2%, 현대중공업 1.7%, GS 1.0%, 한화 1.0%, 한진 0.4% 등이었다.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고 자금, 기술, 인력 등 생산요소로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 중소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KOTRA 광주서 해외시장설명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 오영호)가 10일 광주컨벤션센터에서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2013 KOTRA 해외시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가운데, KOTRA 해외지역본부장이 방한, 세계시장 여건을 전하고 국내기업들에게 지역별 진출전략을 소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매년 초 서울에서 개최되던 유료 행사였지만 올해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광주에서 무료로 개최됐다.

연사로는 KOTRA 유럽지역, 일본지역, 중남미지역 본부장과 지역별 전문가들이 직접 해시장을 소개하고 진출 전략을 설명했다. 첫 번째 연사

로 나선 정종태 유럽지역 본부장은 “유럽 재정위기가 계속되면서 유럽 국가와 기업, 가계는 지출을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에 돌입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기업의 진출기회가 커지고 있다”며 “자동차와 스마트폰 등 국내 대기업 제품의 약진으로 대형유통망을 통해 중소기업이 생필품 시장에 진출하는 것도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이길범 KOTRA 현장컨설턴트는 “이번 행사는 해외시장 정보가 부족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2013년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라며 “기업들의 높은 관심으로 예상보다 훨씬 많은 200여사가 참가했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박철규 중기진흥공 이사장

오늘 영암 대불산단 방문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1일 영암 대불산단을 방문한다.

박 이사장은 중진공 으뜸 기업인 영암 대불산단 ㈜부른중공업을 찾아 전남도의 육성사업 가운데 하나인 요트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또 전남지역본부(무안군)를 방문, 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취임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파워리버캡!

!그린알로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그린파워리버캡 출시!

그린파워리버캡은 100% 천연식물 밀크씨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간 건강지표를 나타내는 효소인 GOT, GPT 수치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원료 비타민,미네랄(11종)이 에너지 대사 활성을 도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 윤지버섯다실체 추출물, 울금 추출물, 효모추출물(글루타치온) 등 부원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1%유지도 함유하지 않은 정제형 복합기능성 제품입니다.

섭취대상자

-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
- 잦은 회식과 야근에 늘 지쳐있으신 분!
- 업무량이 많아 피로하신 분!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